실버톡
치매 예방 뇌운동
그레이몰 | 070.4120.3346

중앙일보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 2026년 3월 5일 목요일

미래엔 아이세움상 9th
접수 기간 2026 01.01~06.30
chdcontents@mirae-n.com
1800-8890

12.06% 폭락, 9·11 때보다 더 아팠다

중동 확전 공포, 코스피 쇼크

하락률 역대 최대, 코스닥도 14%↓

이틀만에 국내 증시 1068조 증발

1년7개월만에 동반 서킷브레이커

전문가 "막연한 공포심리는 금물"

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698.37포인트(12.06%) 하락한 5093.54에 마감했다.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코스닥도 10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와 함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전민규 기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증시를 강타했다. 4일 코스피는 12.06% 수직 낙하하며 5000선을 위협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12.02%)를 넘어선 최대 하락률이다. 코스닥도 14%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1년 7개월 만에 발동됐다. 이날 코스피 시총은 약 574조원이 증발했다. 전날과 합치면 951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728조원)을 넘어섰다. 이틀 새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약 1068조원이 사라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98.37포인트(12.06%) 떨어진 5093.54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투자가가 홀로 5888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797억원)과 외국인(2377억원)은 314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개인 순매수액은 5조 8034억원이었다. 공포 심리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7.61% 오른 80.37에 장을 마쳤다. 역대 최고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역대 최대 추락은 "비이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3.61%), 홍콩 항셍(-2.01%), 대만 자취안(-4.35%) 중국 상하이종합(-0.98%) 등 다른 아시아 증시와 비교해도 유독 낙폭이 컸다.

코스피는 최근까지 올해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만큼, 중동발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중동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틀간 코스피 하락률은 세계 1위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이란 사태로 급락하지만, 이게 아니었어도 3~5월은 조정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며 "지금만큼 빠르게 조정받았던 닷컴 버블이나 3저 호황 때를 보면 대체로 조정폭은 15~23%였다"고 말했다.

전쟁 이후 크게 뛴 원-달러 환율도 악재였다. 전날 역외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넘기도 했다. 이민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200일 이동평균선(98.4)을 넘어 99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라며 "달러 강세는 외국인에게 환차익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코스피의 (지난 2월) 20% 가까이 오른 단기 수익률은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 3면 '코스피'로 계속, 관계기사 2, 4, 5, 6면

"증거·사건조작 살인보다 나빠"

이 대통령, 사법3법 거부권 일축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4일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법 왜곡죄법에 힘을 보태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진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3~6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오현석·하준호·이찬규 기자

» 10면 '사법3법'으로 계속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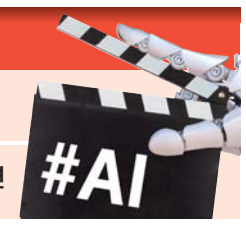
기업은 AI 사용료 100% 지원
번역가, 홍보맨으로 갈아탔다
알파고 쇼크 그 후 10년〈중〉 » 14면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The JoongAng Plus

50㎞ 밖 천안서, 잠실구장 스트라이크 꽂았다 … 이게 천궁 » 8면

완도 갔다가 'AI계 봉준호' 됐다 … 망한 옷가게 사장의 반전 » 18면



AI 국산보청기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TV, 전화, 대화 잘 들리고 가격부담 적은 귓속형 국산 보청기를 보내드립니다.

난청은 뇌의 청각중추영역에서 어음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발생한다. 한번 저하된 어휘변별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난청임을 느낄 때 바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신 AI 인공지능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국산보청기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빠른 피드백 분석기로 불편한 피드백을 제거해주고, 눈에 잘 뛰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를 출력하고, 48채널 시그널 프로세싱으로 고음질의 사운드 퀄러티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기술력으로 우수한 사운드로 잡음을 줄여 가족과의 대화나 TV소리, 전화소리, 교회나 성당에서 설교와 강론도 깨끗하고 또렷하게 듣는 제품이다.

17년 내내 같은 장소, 충정로역 4번 출구에 위치한 HC바이오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AI 인공지능이 더해진 HC 귓속형 국산 보청기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보청기 사용자가 편안하게 듣고 향상된 말소리 이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TV, 전화, 대화, 강의가 또렷하게 잘들리고, 가격 부담이 적고, 80~90대 어르신도 쉽게 사용하는 귓속형 보청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크기와 강력해진 소리 출력은 물론 하이브리드 소음관리™, 하이브리드 사운드 프로세싱™, 하이브리드 피드백 제거™, 말소리 밸런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이다.
수도권은 방문해서 충분하게 체험 후 구입하면 되고, 방문할 여건이 안되시는 분은 방문체험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드리며, 방문체험 신청 할 여건도 안되는 분은 무료체험 신청을 하면 귓속형 보청기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로 무료체험 신청을 하세요! 제품문의 : 1566-0517

HC 보청기 | A.I 인공지능 | 48채널 | 고성능 마이크2개 | 볼륨 소리조절 자유자재

귀 잘안들리는 분이나 부모님이
안들리시는 분은 지금 무료체험 신청 하세요!

17년 내내 무료체험 하는 장소

어르신들…
수도권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저희 직원을 자택으로 방문시켜서 Tv소리, 전화, 가족간의 대화 등 충분히 체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단, 직접 체험하시고 구입하신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평일 : 6시 까지 ■ 토요일 : 1시까지

무료체험이라고 해서…
① 보청기를 파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② 2~3일 체험후 택배로 보내 주십시오.
③ 박스 포함 부품을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4번출구 나와 첫 빌딩
센트럴타워 303호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HC바이오텍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센트럴타워 303호)

▶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32023-GN1-41-0020
▶ 접수번호 : 2023-04549
▶ 제조원 : 디만트 코리아(주) 판매처 : (주)HC바이오텍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신용카드 3~12개월 할부 가능
※ 농협 301-0214-3526-61
<예금주 : (주)에치씨바이오텍>

구입문의 1566.0517